

사고의 반영과 학습의 문헌고찰

—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본 사고반영 중심의 실습 —

신 경 립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강사)

목 차

- I. 서 론
- II. 본 론
 - 1. 사고반영 학습
 - 2. 사고반영을 중요시 하는 실습과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 3. 간호행위와 사고반영 기법 적용
- III. 결 론
- *Bibliography

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실습상황에서 교수와 학생은 그들이 학습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사고의 반영(Reflection)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에 있어서 사고의 반영(Reflection)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것이 현장실습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임을 입증하고, 나아가서 간호교육이란 관점에서 이를 주제로 논의하고자 한다.

I. 서 론

일종의 현장 실습 교육인 간호 실습 교육에 있어서, 임상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전문적인 실무분야에서 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에만 의존하고 있거나 않은가 하는 논란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 그 전문적인 실무 분야는 이론과 법칙, 그에 관련된 지식과 원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직관력뿐 아니라 특수한 기술의 사용 및 환자를 하나의 자율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기반을 둔 임상간호진단을 토대로 하고 있다(Reilly & oermann, 1985). 이같은 모든 문제들이 간호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 자신이 학습의 가능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자신들이 배운 것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고의 반영(Reflection)”이라고 정의한 것이 어떤 형태의 학습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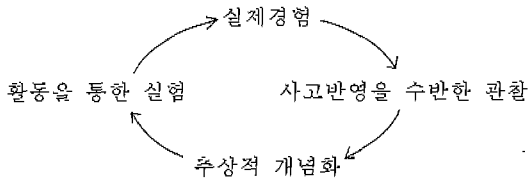
II. 본 론

1. 사고의 반영 학습

학습에 있어서 사고의 반영(Reflection)이란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그 개념을 Aristotele이 그의 저서 윤리학(Ethics ; Grundy, 1982)에서 도덕적 행위와 실제적인 판단에 관해 논한 것에서 부터 그 기원을 찾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John Dewey(1933)가 꼽히고 있는데, 그의 사상은 여러 세대를 거쳐 교육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직관적으로 실행해왔던 것 즉, 학습에 이르는 두가지 종류의 경험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구체화시켜 보여준 것이었다. 그 첫번째 과정은 시행착오를 거쳐 “rule of thumb”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과정이 학습자에게 주는 가치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의 특성과 그가 겪은 시행착오를 설명할 수 있는 범주내에 일어나는 일에 든다. Dewey가

구명한 그 두번째 과정으로는 사고의 반영행위 (reflective activity)로서, 그 행위는 어떤 한가지 경험에 대한 부분적인 사실들간의 연관성과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기하는 것이다. Dewey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고, 또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이와같은 행위라고 믿었다. 그의 경험에 대한 사고가 마치 추론해나가고 있는 관계들과 경험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는, 인종의 연결된 고리와 같은 학습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에 와서 Kolb(1971)는 그가 만든 유명한 학습 과정 모델을 제시하여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었다. 학습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 순환구조로 인식된다.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경험은 관찰과 사고의 기본이 되는데, 이와같은 경험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론으로 융합되고, 그 이론으로부터 행동에 대한 새로운 암시를 끌어내고, 그 암시나 혹은 가설들을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데 이용된다.



Kolb는 학습자들이 만약 능률적으로 되고자 한다면, 그가 제시한 학습 순환 과정의 네단계에 일치하는 네 가지의 각기 다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네가지 능력이란 실제적인 경험 능력, 사고의 반영을 수반한 관찰 능력, 추상적인 개념화 능력, 마지막으로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실험 능력을 말한다. 이와같은 능력은 인지 발달과 학습에 있어서 두가지 중요한 차원에서 대비되는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실제적인 것과 추상적인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적인 것과 사고의 반영 차원이다. 개인은 누구나 이같은 차원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한다면, 전 영역을 통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게된다(Kolb, 1976). 경험적인 지식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다. 만약 우

리가 잠시동안 차분히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실들이 이같은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적인 지식들은 개인적이며 그 개인 특유의 것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경험적 지식은 때때로 제스처어나 주고받는 눈길 속에서, 혹은 목소리의 강도나 억양, 그 밖에 거의 언어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서, 학습과정에서의 만남이나 상담을 통해서 서로에게 대단히 밀착된 관계가 이루어져 갈 때 비로소 서로가 교류하는 것이 바로 경험적인 지식인 것이다. 사고의 반영의 질(quality)은 바로 Schön(1987)이 제시한 것인데,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행동방식을 깨닫게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전문직업 학교에서는 실습에 관한 인식론(epistemology of practice)과 교과과정에 그 기초를 두고있는 교육학적인 가정들을 재검토해보아야 하며, 사고의 반영을 수반한 실습을 직업교육의 주요 골자로 하는 체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학습에 대한 반응이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아무런 의문제기도 없이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허다하고, 실습마저도 그들의 실습시의 행동과 적용하고 있는 이론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rgyris & Schön, 1974).

실습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분야의 완습과 한계점, 언어와 평가체제, 그들이 수집한 사례들, 행위하는 가운데서의 배움 및 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실행을 통해 배우도록 마련한 현장이며, 또한 실질적이고 공동의 집단적인(collective)세계이기도 하다. 실습은 학생이 직접 행동을 통해 얻은 것과 교수와 동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의 환경적인 학습을 해가는 것 모두를 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Schön(1987)은 행위하는 가운데서의 반영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형적인,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끄는 행동이 일어나는 상

황에서 그러한 반응들은 단순히 행위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얇에 불과하다. 그같은 틀에 박힌, 진부한 반응들이 만족스러운 것이든 아니든, 뜻밖의 경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위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얇의 번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뜻밖의 결과에 대한 놀라움 때문에 현재의 행동을 한번 돌이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행위의 반영적 사고는 비판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행위 가운데서의 얇의 가설적 구조 (assumptional structure)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시점의 행위를 반영한 사고라는 것이 즉각적인 실험을 하도록 한다. 우리는 일단 생각해보고, 새롭게 관찰된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취하게 한다. 우리는 일단 생각해보고, 새롭게 관찰된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취하게 되며, 그 현상에 대해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해한 것을 시험해보거나 혹은 보다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해놓았던 조치들을 확인해보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만약 사람들이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안을 숙고해보도록 하는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대단히 바깥적인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실습은 실습에 있어서 불확정적 영역 (불확실하고 특이하거나, 모순되는 양상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있는 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사고의 반영을 유도하는 대화를 중요시하는 학생과 교수들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마련이다. 대개 초기 단계에서는 행동하는 가운데서의 반영을 중시하는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학습적 대화가 교수의 지도하에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

2. 사고의 반영을 중요시하는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학습적인 대화는 사고의 반영을 유도하는 실습에서 학생과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의 한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습과정중에 이루어지는 대화이며, 교수의 도움으로 얻은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chön(1987)은 행동을 통한 특정한 학습이 이루어

어지는 것으로 전제가 된 실습실에서 교수와 학생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과정을 기술한 바 있다. 다음의 세가지 대화의 요소가 필수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의사소통은 먼저 학생이 일을 디자인하고자 시도하는 그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쌍방향 행위중 반영을 중시하는 사고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실습실을 잘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실습 설계를 계획함으로써 의사소통 과정은 계속된다. 나아가서 의미에 집중하여 학생이 그 자신과 지도교수가 적절한 설계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켜가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사소통의 형태는 말하고 듣는 것과 표현하고 보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Petra가 설계한 실습상황에서는 말하고 듣는 탐색과정 둘 다 상당히 높은 잠재적인 효율성이 있음을 보게된다. 그 이유를 들자면 학습은 항상 미완성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학습에 있어서 듣는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든지, 혹은 학생이 알고있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사물이나 절차라든지, 어떤 성질이 지적되면서 학습자체가 애매모호해지거나 오히려 낮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현하는 방법을 현재의 앞에 있는 학생에 따라 변화시켜야 하며, 교수가 표현하고 설명하는 태도 또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우기 교수는 학생이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학습 디자인의 여러 단면이나 그 일부를 표현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에게 모방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모방에는 두가지 전략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하나의 과정을 재생하는 것(reproducing)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복제하는 것(copying)이다. 모방을 통해 관찰한 행동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행위(a global gesture)가 계속 달라지는 형태를 띠게 된다거나 그것을 이루고 있는 부분적인 행동들(component actions)을 하나로 묶기 위해 학습의 형태를 취하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라고 볼 수 있다. 모방을 통한 재구성은

계속해서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기술 습득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설계 또는 디자인 상황에서 지도교수가 제시하고 말해주는 것이 서로 엮어져 나가는데, 학생들이 듣고 따라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된다. 그와 같은 혼합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그들이 모방이나 지시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는 현재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추어 제시하고 이야기 해주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또한 학생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어려움이나 잠재적인 요소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하는 것과, 학생들이 교수 자신의 중재역할에 도움을 받아 만들어낸 것을 발견하고, 시험해보는 방법도 배워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정취법과 사고를 유도하는 모방, 그들 자신이 행위를 통해서 얻은 앎과 교수가 말한 바를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Schön, 1987). 만약 교수가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수준에서 실습에 임하도록 도와주고자 한다면, 보다 나은 수준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새로운 행위나 새 단계의 기술을 거의 습관화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학습자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임상 간호 교육도 Schön이 임상 분야에서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했던 행위하는 가운데 사고의 반여의 과정을 수반한 실습을 통한 교육에서 예외는 아니다. 간호학생의 전반적인 교육경험에 있어서 임상기관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최근 간호 분야의 저술들을 살펴볼 때, 어떤 분야의 교수와 학생의 상호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확정적으로 밝히는 데는 거의 연구의 손길이 뻗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다. 그 문제는 사실 행위 가운데 사고의 반영을 통한 역할 수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McCabe(1985)는 임상 담당교수의 임무는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에 대해 학생들이 배우는 데 학생들에게 뒷받침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뿐 아니라 간호실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

쳐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와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Stephenson(1983)의 연구는 교수가 학생과 형성해야 할 관계의 유형에 대해 프로그램의 일부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그 임상간호 프로그램 전반에 나타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연구는 파스한 인정과 보살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적인 면을 유지하고, 학생에게는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시켜준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Wong(1978)은 학생들이 학습을 진전시키거나, 그와 반대로 오히려 저해하는 교수의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며, 그와 더불어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들이 보여주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학생의 학습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된 교수들의 행동으로는 다음과 같다: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냉소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행동하고, 학생을 과소평가하여 무시하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지나치게 세심한 것까지 지적하며, 학생의 실수난 취약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학년별로 자료분석을 한 것을 보면, 1학년 학생들은 특히 교수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민감한 반면, 2학년 학생들은 현시적으로 드러나는 교수의 능력 정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임상교육을 다루고 있는 제한된 분량의 간호학 문헌을 분석해보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이나 다른 보조적인 학습자들은 학습을 증진시키는 역할, 즉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뒷받침할 수 있고, 그 학습자로 하여금 현장의 상황으로부터 최대한도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의 자극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전반적인 실습교육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교수의 효율적인 지도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학생과 교수간의 상호작용이 계속 반복되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임상교육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해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3. 간호와 행위의 반영기법

행위를 통해서 사고의 반영이나 Schön의 이론을 임상간호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우선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Schön의 이론에서 실질적인 교육으로 볼 수 있는 간호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행위를 통한 사고의 반영이라고 본다. 실습에 임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사고의 반영을 기초로 간호행위를 선택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행동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고, 그 이유에 대해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그들은 간호라는 것을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직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학생들은 훈련 초기부터 간호자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인식을 갖는데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다.

첫째로, 학생들에게는 간호행위를 관찰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른 실습자들이 이미 발견했던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학생들 스스로가 실습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간호하는 것에 대해 관찰한 바를 행동의 이론적 근거로 놓고 토론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다. 그와 같은 토론은 학생들이 후에 간호행위를 보다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로, 교수진은 학생 각자가 갖고있는 경험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경험한 바에 대해 사고하는 것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신의 인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인식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학습적 대화에 있어서, 청취기술은 학습자가 그들 나름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방법들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고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들 자

신의 분석한 것이나 해석을 내린 것을 제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사실이다.

세째로, 사고의 반영이란 생각할 시간을 준다거나, 비판적인 자기 인식과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들을 하는 것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고의 반영은 비디오테이프나 관찰 기록과 같이 실습 현장에 있었던 학습자의 행위 기록을 제공해 줌으로써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수는 학습자들에게 능동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도록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 항상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체현시켜 다시 체험하게 하고, 그들 나름의 언어로써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행동한 것에 대한 사고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있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도의로 일정 역할 담당을 해보는 것도 학생들이 환자에게 간호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자 훈련자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그 자신은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력을 갖는 세력으로서 남아있도록 하고, 학습자가 그들 자신이 경험한 과정속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는데 있다.

Ⅲ. 결 론

사고의 반영을 토대로 한 학습은 앞으로 경험을 통한 전문분야의 학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전무가 스스로 계속적으로 배움의 길을 걷는 과정속에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Schön의 신념은 간호실습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임상분야의 교육자들은 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제 1급 요원들이 되어야 하고, 평가기준에서는 이같은 우선권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습 과정과 실습을 통한 학습 경험은 반드시 그 교과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Bibliography

Argyl, M. (1975).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behavior. Penguin Harmondsworth.

Argyris, C., & Schön, D. (1974). *Theory into practice*. San Francisco : Jossey-Bass.

Burnard, P. (1986). Towards and epistemological basis for experiential learning in nurse educ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2 : 189-193.

Dewey, J. (1933). *How we think*. Boston : D.C. Heath.

Grundy, S. (1982). Three modes of action research. *Curriculum Perspectives*, 2(3) : 23-34

Infante, M. S. (1975) *The clinical laboratory in nursing educa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Karns, P. J., & Schwab, T. A. (1982, January). Therapeutic communication and clinical instruction. *Nursing Outlook* : 39-43

Kolb, D. A. (1976). *Management and the learning proces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8(3) : 21-31.

Kolb, D. A., Rubin, I., & McIntyre, J. (1971). *Organizational psychology : Anexperiential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Laschinger, H. K. (1984). Learning styles of nursing students and career choic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9 : 375-380.

McCabe, B. W. (1985). The improvement of instruction in the clinical area : A challenge waiting to be me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4 : 255-250.

Reilly & Oermann. (1985). *The clinical field*. Connecticut : Appleton-Century-Crofts.

Schön, D. A. (1987).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San Francisco : Jossey-Bass.

Stephenson, P. (1984). Aspects of the nurse tutor-student relation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9 : 183-290.

Windsor, A. (1987).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6(4) : 150-154.

Wong, J. (1987). Towards effective clinical teaching in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2 : 505-513.

Wong, S. (1978). Nurse-teacher behaviors in the clinical field : Apparent effect on nursing students' learn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3(4) : 369-372,

Wood, V. (1987). The nursing instructor and clinical teaching. *International Nurses Review*, 34 (5) : 120-125.

Reflection and Learning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 at reflective practicum

Kyung Rim, Shin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In nursing, a practice discipline, it has been argued whether the mastery of clinical competence depends on types of learning styles, learning experience, and the use of specialized skills. All these problems are not limited to nursing education. Later educators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reflective learning which is a vital element in any form of learning and that teachers and students need to consider how they can incorporate some forms of reflection in the cour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educational articles for understanding better what reflection in learning is, to identify the theme which is of important relevance to professional practice, from the book,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and to discuss the theme within nursing education.

Reflection in learning was defined by Dewey(1933) as the process which is involved the perception of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 between the parts of an experience. This experience is passed on when two people becoming involved with each other in a conversation. Schon(1987) emphasized that learning conversation, which is a part of the interaction of student and teacher,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process of reflection-on-action.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good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and student, faculty's role, interpersonal skills are critical in learning conversation.

Then Practicing nurses who accept the need to choose nursing actions on the basis of reflection, who accept the necessity for understanding and being able to communicate the reasons for action are a powerful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o an increasingly more effective profession for the benefit of patients.